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12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20년 10월 26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노조법 개약이 온다!

11월 노조법 개약이 온다!

국회가 10월 한달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부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11월에는 국회 본연의 업무인 법을 만드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문제는 노동자들에게 독이 될 법들이 국회에 쌓여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약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하지만, 정작 ILO 핵심협약의 내용은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만 가득하다.

노조 손발 다 묶어버리는 노조법 개약!

정부 노조법 개약안은 ①금속노조 지부, 중앙 간부의 사업장 출입 제한, ②해고자의 지회 임원 출마 제한, ③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 -> 3년 상향, ④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작 노

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근로시간면제 한도 폐지 같은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 정부의 노조법 개약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조합 활동은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막는다!

금속노조는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노조법 개약안 상정을 예고하는 시점에 전 조합원 주야 2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 돌입시 각 지부, 지회별로 노동개약 분쇄!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정부의 노조법 개약안은 노골적으로 금속노조를 비롯한 산별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을 막지 못하면 노조할 권리는 더 멀어진다.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내자!

지부교섭 파탄내는 한온시스템, 보쉬!

지부교섭 사업장 중 가장 큰 사업장 2곳인 한온시스템과 보쉬가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올해 지부교섭 요구안 중 2가지를 두 회사가 끝까지 반대하며 버티고 있다. 한온시스템은 개별조합원(한온시스템 사무일반연구직)의 조합 회의참여 시간 보장을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보쉬는 상급단체 공직취임 인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쉬는 한술 더 떠서 중앙교섭에서 합의된 통일요구안(노동3권 보장, 감염병 예방)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지부는 두 회사 본사를 찾아가서 투쟁을 시작했다. 10/14 보쉬 용인본사, 10/21 한온시스템 대주주 한앤컴퍼니 앞에서 지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사를 직접 타격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지부교섭도 보쉬 용인본사에서 개최할 것이다. 안되면 될 때까지! 끝까지 간다!